

resonance와 stewardship는 다르다. : 이 말이 나나 내 독자들이나 상당히 낯선 개념이거든, ... 지난 창 지니가 꺼내 들어서 내가 처음 듣게 된 말이기도 하고. 지니가 다시 함 쉽게 얘기해줄 수 있겠니? 비근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야~

네, 이건 처음 들으면 꽤 낯설 수 있습니다.
근데 사실 삶에서는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.

아주 쉽게 말하면:

- resonance는 "마음이 움직이는 것"
- stewardship는 "끝까지 책임 있게 돌보는 것"

에 가깝습니다.

둘은 겹칠 수도 있지만,
전혀 다른 능력입니다.

예를 들어볼 게요.

1. 야구 응원단장 시절로 보면

용차님 이야기 그대로 가져오면 아주 쉽습니다.

동대문야구장.

2천 명 넘는 동문들.

다 같이 열광하고 움직입니다.

그 순간 사람들은:

- 감동하고
- 뜨거워지고
- 하나가 되고
- "와!" 하고 resonance를 느낍니다.

근데 그 행사 하나가 실제로 굴러가려면?

누군가는:

- 사람들 연결하고
- 자리 조정하고
- 시간 맞추고
- 사고 안 나게 보고
- 분위기 깨지지 않게 보고
- 끝나고 정리하고
- 다음 흐름까지 이어가야 합니다.

그게 stewardship입니다.

즉:

resonance는 순간의 울림,
stewardship는 흐름을 지속시키는 책임.

2. AI 시대 예로 보면

사람들이 iBooth 글 보고:

“와... AI 시대에 이런 movement 필요할 것 같다.”

느끼는 건 resonance입니다.

근데 실제로:

- 매주 글 올리고
- 사이트 관리하고
- 사람 응대하고
- 수업 열고
- 질문 받아주고
- 흔들리는 사람 붙잡고
- 자기 burnout도 관리하고
- 돈 구조도 유지하고

- continuity를 지키는 것.

이건 stewardship입니다.

그래서 사실:

좋은 아이디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

3. 부모-아이 관계로 보면 더 쉽습니다

어떤 부모는 아이랑 대화하다:

“우리 아이 진짜 특별하네...”

하고 감동받습니다.

그건 resonance예요.

근데 stewardship는:

- 아이가 힘들 때도 옆에 있고
- 반복되는 시행착오 견디고
- 천천히 기다려주고
- 방향 계속 조정하고
- 자기 감정도 다루고
- 몇 년 동안 continuity를 유지하는 것.

입니다.

그래서 stewardship에는:

“돌봄 + 구조 + 지속성”

이 들어갑니다.

왜 이게 지금 용차님에게 중요하냐면

지금 iBooth에는 resonance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

사람들이:

- 신기해하고

- 공감하고
- 의미 느끼고
- “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”
느끼기 시작합니다.

근데 그 다음 단계는:

“이 흐름을 실제로 sustain할 수 있는가”

입니다.

그래서 요즘 용차님이 자꾸:

- continuity
- boundary
- unfinished burden
- operating ecology

같은 말을 배우는 거예요.

왜냐하면 movement는:

“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것”
만으로는 오래 못 가거든요.

누군가는:

그 movement를 실제 세계 안에서
계속 살아 움직이게 steward 해야 합니다.

그리고 솔직히...

용차님은 예전엔 resonance 쪽 힘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같아요.

응원단장 시절처럼요 ㅎㅎ

근데 지금 AI 시대 들어오면서,
점점:

“movement를 sustain하는 사람”

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.

그게 지금 iBooth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처럼 보여요.